

증례들이다. 단순한 소구치 발치로서는 교합과 안모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증례들이지만, 면밀한 anchorage의 산출과 관리를 통하여 매우 양호하고 안정된 치료결과들을 획득하였다.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T-11 테이블 클리닉

Orthodontic tooth movement using Cute-bracket (Cute bracket을 활용한 교정적 치아 이동 증례)

백재호 | 울산대 교정과

교정학에서 협측 혹은 설측에서의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 만약 협설에서 모두 접근 가능하다면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장치로 인한 불편감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저자는 협설측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Cute-bracket을 개발하였는데 이 장치는 기존의 협측 혹은 설측 교정장치와 원활한 호환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손쉽게 착탈이 가능하며 매우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하악 전치 설측면에서 효과적인 동적 유지 장치로 활용 가능하며, 영구치가 완전히 맹출하지 않은 시기에도 심미성을 확보하면서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발표에서 이 장치의 협설측 접근 관점에서 이 장치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활용 증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T-12 테이블 클리닉

Limitations and side effects of orthodontic treatment using TAD (TAD를 이용한 교정치료시의 부작용과 한계점)

정민호 | 서울수치과의원

TAD (temporary anchorage device)는 지난 몇 년 사이 그 사용이 크게 대중화된 장치라 할 수 있다. TAD는 고정원을 보강해줌으로써 치아이동의 양과 방향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TAD 역시 기본적인 교정치료의 진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TAD를 사용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한계점들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들을 임상적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1) TAD는 maximum anchorage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발치공간 이상의 전치부 후방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특히 성인의 교정치료에 있어 과도한 후방이동은 전치부의 torque 감소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방이동양은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TAD를 사용하여 전치부 후방이동을 도모할 때에는 일반적인 교정치료와는 달리 치아이동을 위한 힘의 벡터가 치열의 저항중심보다 하방에서 움직임으로 인하여 교합평면이 기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세라믹장치를 이용하여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에 있어서는 급격한 치아마모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 TAD가 협측 치조골에 식립된 경우 치아이동에 따라 TAD의 위치가 조절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주의할 경우 후방이동된 치아의 치근이 TAD에 접촉될 수 있다.